

2022학년도

제1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공개용)



▣ 일 자 : 2022. 12. 16.(금)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양캠퍼스 화상회의실[화상회의]

| | 간 사 | 의 장 |
|--------|-----|-----|
| 결 재 | | |

명 지 대 학 교

2022학년도 제1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공개용)

■ 일 시 : 2022. 12. 16.(목) 11:20 ~ 13:40

■ 장 소 : 양캠퍼스 화상회의실[화상회의]

■ 참석평의원 : 김진환, 이상현, 이정현, 김용달, 이대욱, 최정현, 엄세빈
(이상 7명)

■ 불참평의원 : 최현선, 변상범, 유석희, 이순식(이상 4명)

■ 배 석 자 : 000 부총장, 삼일회계법인 000 상무, 000 부장

■ 성 원 : 재적평의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됨.

■ 안 건 :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의 통폐합 승인 신청서 제출의 건

■ 심의내용

- 의장 : 2022학년도 11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간사에게 성원 보고 요청
- 간사 : 재적평의원 11명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함
- 의장 : 오늘 회의는 통합에 있어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거나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임. 안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000 부총장님과 삼일회계법인에서 참석을 해주심
- 000 부총장 :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대신 참석을 하게 되었음. 오늘 평의원회에서는 교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교무위원회에서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의 통합안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고 심의를 거쳐 의결이 되었음. 신청서 내용을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 의장 : 금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2월 5일에 통추위에서 받은 통합안 이후 달라지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요청함. 평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봄
- 000 평의원 : 동의함
- 의장 : 수정된 내용을 먼저 듣고 질문은 이후에 하기로 함
- 000 부총장 : 먼저 프로세스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겠음. 그 동안 통추위나 실무위에서는 요청이 들어온 공청회나 간담회, 설명회는 모두 진행을 하였음. 통추위에서는 통폐합 신청서 의결이 되었고,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교무위원회에서 모두 승인을 받았고, 현재 전문대에서는 평의원회 의결도 마무리 되었음. 교육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통합에 대한 동의서, 교무위원회, 평의원회, 그리고 앞으로 열릴 이사회에 의결 사항들이 통합 승인 신청서에 포함되게 됨. 올해 내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삼일회계법인 000 : 신청서 내용을 설명함
 1. 입학정원과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교원확보율, 교사교지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이 기준에 충족하여 작성하였음을 설명

2. 특성화계획, 통합행정조직도를 설명함
 3. 학사구조 변경사항 중심으로 설명함
 4. 폐지되는 대학 교직원 조직계획 및 캠퍼스 활용계획 설명함
- 의장 : 궁금하신 점 질의하시길 바람.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음. 대학 현황에 2023학년도 입학 정원이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 2,527명 동일한 것이 맞는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23학년도에 명지대가 5% 정원 감축이 되면서 2,660명에서 2,527명이 되었고 명지전문대도 2,527명이 맞음
 - 의장 : 정원이 우연히 같아진 것인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맞다고 확인함
 - 의장 : 입학정원 미충원율 공학계열 학생정원은 4,069인데 재학생수 1,295명, 예체능은 1,293명 입학정원에 재학생 4,042명임. 명지전문대는 숫자가 비슷비슷한데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겠음
 - 의장 : 이런 자료를 심의를 하는 것은 곤란함을 표현함
 - 000 부총장 : 삼일에서 해당 내용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음. 대학현황에 23학년도 24학년도 현황이 나와있음. 신청서 제출 연도는 22학년도인데 23학년도, 24학년도를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양식상 통합대학 출범하는 해와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임
 - 000 부총장 : 알겠음
 - 의장 : 다른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람
 - 000 평의원 : 통폐합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계획안에서 명지전문대는 2,644명에서 1,469명 감축으로 나오는데 명지대는 2,660명에서 감축없이 2,660명 유지되는 것인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맞음.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하게 되면 전문대학에서만 감축이 있음
 - 000 평의원 : 교육부 통합 신청서 양식을 보면 현재 입학 정원, X년도 입학 정원에서 차를 쓰게 되어있던데 그거는 해당이 없는 것인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양식은 그렇게 되어있음
 - 의장 : 미충원율이 0.1%, 0.2%, 0.3%가 있던데 이것은 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기준상으로는 입학 정원이 미충원되는 것만큼 줄이라고 되어있지는 않음. 일반대와 일반대가 통합할 때는 미충원된 만큼 줄이라고 되어있지만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할 경우에는 전문대에서 줄이는 것으로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000 평의원 : 신청 3년전 입학 정원이 기준인데 입학정원이 19학년도 2,660

이었고 20학년도에도 2,660명 아니었는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맞다고 확인함
- 000 평의원 : 올해 신청을 하지 않고 내년에 해도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닌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보면 전문대 기준으로 3년전으로 기준을 삼아서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일반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음. 보수적으로 잡아 일반대는 현재 내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최근 통합한 학교 사례에서도 현재 정원으로 신청을 하였음
- 000 평의원 :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보면 전문대라고 나와있지 않고 통합하는 학교로 공통사항으로 나와있음. x년도에 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공청회 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신청해도 인원이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임
- 삼일회계법인 000 : 내년에 하게되면 5% 정원 감축된 것으로 반영이 됨
- 000 평의원 : 3년 전 입학정원인데 어떻게 내년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출하는 해의 정원으로 반영을 함
- 000 부총장: 질문하신 것에 참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음. 3년전 입학 정원은 4년제대와 전문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음. 통합한 학교의 예를 봤을 때 4년제는 현재 정원으로 카운트를 하였고 전문대는 3년 전 정원으로 카운트를 해서 통합을 승인한 일들이 있다고 함
- 000 평의원 : 부총장님 하신 말씀대로 교육부가 법령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음. 규정에는 분명히 전문대, 4년제대 다 3년 전 입학 정원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부가 4년제에 대해서는 통합 신청 당시로 해석을 했고 그것에 대한 소송에서 해당 대학교도 졌다는 판례도 알고는 있음. 삼일에서 보내 주신 신청서에 보면 통합 당시 입학정원하고 x년도라고 표기된 개교 당시 입학 정원의 차이를 기재한 표가 있었던 것 같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람. 지금 2,660 숫자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삼일회계법인 000 : 맞다고 확인함
- 000 평의원 : 두가지 질문을 하겠음. 폐지되는 대학에 대한 조치 계획에서 원칙으로는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명지전문대학의 교직원 고용 승계는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명지대학교 교원의 신분상의 불이익 부분이 모호함. 원칙으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최소화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함
- 삼일회계법인 000 : 이 부분은 폐지되는 대학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명지대가 아닌 명지전문대만 대상으로 작성을 하였고, 향후 교직원 인사 규정이나 원칙 같은 게 확정이 되지 않았음.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던 타대학의 사례를

보아도 원칙 수준으로만 제출을 한 상태이고 우리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였음

- 000 평의원 : 이전 사례가 강력한 근거는 되기는 하는데, 폐지되는 대학에 대한 조치만 있고 명지대에 대한 조치 계획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질문함
- 000 부총장 : 명지대학교의 교직원의 신분은 크게 변화가 없으므로 신청서에 담기지 않아도 됨
- 000 평의원 : 알겠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음. 특성화 관련해서 자연캠퍼스에서는 화학·생명과학대학과 건축대학만 특성화에서 빠져있음. 특성화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얘기가 있는데 특성화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려도 되고 궁금함
- 삼일회계법인 000 : 수직적 특성화는 모든 학과를 포함해서 작성할 수는 없음. 큰 방향에서의 특성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평적 특성화로 융합 특성화와 평생교육 특성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과를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000 평의원 : 적절한 대답이 아님. 다시 답변을 부탁함. 특성화에 포함에 되는 대학과 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가 있기 때문에 특성화를 할 때 보통 단과대학 중심의 특성화를 하지는 않음. 과나 대학을 지정하지 않고 학문의 방향을 지정을 하지만 지금의 특성화는 학과나 단과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기에 문제가 있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 지금의 방향으로는 화학·생명과학대학이나 건축대학은 장기적으로도 특성화에 포함이 될 수 없음. 어느 과든지 특성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임
- 삼일회계법인 000 : 말씀하신 부분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통합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성화의 방향이 학교 전체의 특성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했을 때 전문대의 유사 중복학과를 어떻게 배제시킬 것인지에 대한 특성화 방향을 얘기하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고 봐야 함. 모든 단과대학과 학과들이 특성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수직적 특성화와 수평적 특성화를 해 나가는 것이 맞으나 여기에서는...
- 000 평의원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함. 신청서가 이대로 잘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신청서를 적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임. 교육부에서 보기에 특성화의 방향 자체가 특정 단과대학이나 학과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임.
- 삼일회계법인 000 : 교육부에서는 특성화를 선택과 집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혁신 지원 사업에서도 특성화 분야를 계속 요구를 했음. 거기에는 수직적 특성화로서 학문 분야별 특성화 그리고 수평적 특성화를 해서 기능별 특성화를 계속 얘기하였음. 학문 분야별 특성화를 하면 모든 단과 대학이나 학과가 포함될 수 없고, 특성화 집중도라는 것도 제시하라고 했기에 모든

- 학과가 포함될 수는 없음. 원칙에 어긋나게 작성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 000 평의원 : 신청서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음. 다시 한번 이야기의 초점은 신청서에 제시한대로 단과대학 혹은 특정학과 중심으로 특성화가 제시되면 특성화에 합류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학과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당연히 궁금한 것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 혹은 비전이 제시되는 것이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는데 유리할 것임
 - 000 부총장 : 000 평의원님 말씀은 일단 실무위원회나 통추위 쪽에 가능한 전달은 하겠음. 그리고 특성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대학의 모든 단과대와 학과를 학교 측면에서는 당연히 발전을 시키려고 함. 특성화는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뒀서 신경을 쓰느냐는 얘기이지 그쪽에 중점을 둔다고해서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함. 일정한 자원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 더 집중하고 투자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지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이 부분은 회의 이후에 실무위나 통추위 쪽에 전달을 하겠다고 약속하겠음
 - 000 평의원 : 부총장님 말씀 잘 이해하고 감사함. 조금 더 추가하면 10여년 전에 명지대 특성화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그 당시 대학들이 연구 중심, 교육 중심, 연구·교육 중심 중에 선택을 해야 했음. 명지대 입장에서는 연구 중심도 교육 중심도 선택하기 어려웠고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한다는 식으로 작성을 하였고 우리도 아이디어를 냈음. 중급 기술자 집약 산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명시하였고 모든 학과들이 다 합류할 수가 있음. 지금 기존의 사례를 가지고 질문의 답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 000 부총장 : 신청서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라도 각 단과대 학장님과 이번 기회에 교육의 특성화 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음. 개인적으로는 명지대에서 단과대 중 건축대가 가장 우수한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서울로 이동하면 좋았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음.
 - 의장 :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있는지 물어봄
 - 000 평의원 : 통폐합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계획이 나오는데 2023-2024학년도까지는 현재 계열별로 되어있는데 개편을 해도 계열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계열별로 이렇게 산정이 된 것으로 보여짐. 지금 81%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총원없이도 확보율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새로 총원이 필요함
 - 000 평의원 : 새로운 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인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19학년도 이상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유지하려면 신규 채용이 필요함

- 000 평의원 : 그 규모나 이런 데이터가 나와있는 것이 있는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심사 점검표라고 이 수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추가로 제출됨. 거기에는 추가로 몇 명이 확보되어야 되는지 기재가 되어있음
- 000 평의원 : 그 내용을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질문함. 그리고 명지전문대와 통합이 되는 2025학년에 전문대 학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몇 년간 유지가 되는지 질문함
- 000 부총장 :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음. 통합 후에 전문대 학생이 언제 까지 전문대 학적을 유지하고 졸업을 하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타 학교의 경우를 보면 짧게는 2년을 한 대학도 있었고 3년도 있었음.
- 000 평의원 : 다른 데를 보니 짧게 가져가고 특별 편입을 한 학교도 있었음. 그래서 직원의 입장에서 행정이나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언제 되는지를 질문한 것임
- 000 부총장 : 곧 결정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음
- 의장 : 26학년도 기준은 없는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양식에서 5개 학년도만 작성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음. 그리고 전임교원 총원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27학년도 81.7%까지 맞추려면 26학년도에는 55명 27년에 102명을 채용해야 함
- 000 부총장 : 퇴직하시는 교수님을 포함하는 것인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포함한 계산임
- 의장 : 통합 안의 기초는 학부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부제 중에서 원하지 않는 학과만 특별하게 세부 학과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전공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안을 보면 전공은 거의 대부분이 학과로 다시 돌아감. 스포츠학부는 왜 스포츠지도학만 학과로 되어있는지 설명 부탁함
- 삼일회계법인 000 : 12월 5일 통추위 이후에 변경된 사항만 말씀 드리면, 학부제를 유지하는 것은 맞음. 100% 학부제와 그렇지 않은 학부제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전공이라는 단어가 너무 하위 단위로 느껴진다는 말이 있었음.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학부 밑에 학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100% 학부제의 경우에는 학부 밑에 전공으로 구별을 해서 넣었음. 그래서 기존에 전공으로 되어 있던 것 중에 많은 학과가 학과로 변경이 되었고 학부 밑에 전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모두 100% 학부제로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권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해 주기로 한 것이 100% 학부제임. 스포츠 지도학과의 경우에는 별도의 실기시험을 통해 별도 단위의 입학 정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음
- 000 부총장 : 보충설명을 드리겠음. 초안에는 학부 밑에 거의 모든 데가 전공이었음. 그 동안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전공보다는 학과라는 것을 남겨달라는 의견이 많았음. 그래서 학부 밑에 학과를 다 명칭을 학과로

했고 전공으로 남아있는 데는 100% 학부제를 하겠다고 요청 의견을 주신 것임. 기존에 어느 정도 정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의 의향에 따라 학과에 배정하는 식인데 100% 학부제에서는 그런 과정 없이 전체 학부제를 운영 하겠다고 요청하신 데만 전공으로 남음

- 의장 : 결국은 1학년부터 학과로 되어 있는 것은 1학년때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과로 들어왔으면 이 학생은 컴퓨터 공학과로 졸업을 한다는 것임. 전공으로 되었으면 컴퓨터 공학과가 정보통신공학과하고 같은 학부라면 원래는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도 될 수 있고 정보통신 공학 전공으로도 갈 수 있는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 것인지 질문함
- 000 부총장 : 그렇지 않음. 지금하고 동일함. 이것도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나 원래 삼일의 초안은 100% 학부제임
- 의장 : 경쟁을 시켜서 전공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나 지금은 경쟁을 하는 전공이 없다는 의미가 아닌지 질문
- 000 부총장 : 아님. 그 동안의 공청회나 교수님들의 의견으로는 100% 학부제가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임. 논의는 계속 해봐야 하지만, 예를 들어 수시 때 어떤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은 학과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1학년 끝난 뒤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가게 하는 절충적인 방식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의장 : 다시 정리를 해서 부총장님과 학생회장님이 전자공학과이시니 전자공학과로 예를 들겠음. 전자공학부에 들어오면 1학년때는 공학부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전기공학부로 들어오고, 2학년때는 전기공학과로도 전자공학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임. 그런데 학과로 되어 있으면 화학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화학신소재공학부로 들어왔는데 2학년 때 화학공학과로도 갈 수 있고 신소재 공학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질문함
- 000 부총장 : 전기전자공학부는 전기과 교수님들과 전자과 교수님들의 협의를 하셔서 100% 학부제를 하기로 함
- 의장: 학생들은 전지전자공학부 학생으로 들어와서 전기공학, 전자공학으로 들어가고 싶는데 여기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전기전자공학부 학생인 것인지 질문함
- 000 부총장 : 100% 학부제를 안 하는 경우에는 현재 체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됨. 1학년 때 일부는 학과로 배정이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는 시스템임
- 의장 : 삼일 쪽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가 완전히 바뀌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함
- 삼일회계법인 000 : 큰 차이는 이것임 학과로 되어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기존 정원을 정해놓게 되고 100% 학부제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내부적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학생이 원하는 대로 전공 배정이 되게 됨

- 의장 : 결국 자율 경쟁, 무한 경쟁을 포기했다고 봐도 되는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100% 학부제는 그렇다고 봐도 됨
- 000 평의원 : 폐지되는 대학에 대한 조치 계획은 폐지되는 대학에 대한 조치만 있다고 말씀하였으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부총장님께 질문을 하겠음. 명지대학교 내에서도 폐지되는 학과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질문함
- 000 부총장 : 저는 통추위 부위원장이고 명지대 행정부총장으로 똑같은 말을 공개적으로 했음. 명지대나 명지전문대나 새 집을 설계하고 지은 후 가장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음. 그리고 물리학과는 융합에너지학과로 전환이 된 것이고 수학과는 응용통계학과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교원분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은 전혀 없음. 단언할 수 있음. 그리고 최근에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학교 본부에서 의향을 여쭙보는 단계를 가졌음.
- 000 평의원 : 평소 부총장님 인품을 알고 있으니 그 말씀을 믿겠음. 구체적으로 여쭙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둑학과하고 철학과인데 조치는 잘 준비가 되가고 있는 것인지 질문함
- 000 부총장 : 철학과는 어느 정도 조율중이며, 바둑학과는 그저께 간담회를 했고 의견은 밝혀주시지는 않은 상태임
- 의장 : 소속 변경은 어느 시점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질문함
- 000 부총장 :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은 일단 승인 신청서를 내고, 교육부 승인이 나면 통추위와 실무위를 없애고 가칭 개교준비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임. 교원에 대한 사항은 내년에 교육부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수정을 거치면서 안이 나올 것 같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무위원회 교육분과를 중심으로 그런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함
- 의장 :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추가로 받겠음
- 000 평의원 : 공학계열 학생정원 4,069 중 재학생 1,295명, 예체능 1,293 중 재학생 4,042명임. 이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요청함
- 삼일회계법인 000 : 다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공학과 예체능이 숫자가 잘못 적힌 것 같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정하겠음
- 000 평의원 : 이것은 내용 '수정'임. 내용 수정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내용 수정이 맞음
- 000 평의원 : 이것을 삼일에 질문을 해야할지 부총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정사항을 다시 통추위를 개최해서 수정된 안을 통과하는지 아니면 그냥 수정을 하는지 질문함
- 000 부총장 : 이 사항은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숫자가 바뀐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통추위 위원 앞으로 그룹웨어 또는 문자로 숫자상의 오류가 있어서 승인 신청서에서 수정했음을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000 평의원 :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달이라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내용의 수정이나 추가, 폐기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건지 질문함
- 000 부총장 :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직 누구와 의논을 한 적은 없으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람. 숫자는 틀린 것이 명확하니 오류가 있어 오류 수정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하겠음. 신청서를 올해 안에 제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청서를 교육부에서 한 번에 승인하는 경우는 없을 것임. 수정 의견이 오고 실무위, 통추위에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할 것임. 그 과정을 통해 통추위, 실무위에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뜻임
- 000 평의원 : 공청회에서부터 실용학문을 키우겠다고 밝혔고, 몇 개 과들은 이름을 바꾸고 생존하는데 성공했음. 여전히 철학과와 바둑학과는 폐과대상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명지대와 전문대가 통합된 미래 명지대학교의 특성화 실현에 철학학과가 걸림돌인가임. 분과위원회 위원의 대부분의 박사학위는 Ph.D 철학박사학위임. 신학이 떨어져나간 이후로 학문의 오래됨을 따지만 철학이 가장 오래되었고, 철학학과가 도대체 뭘 하는지 언제나 회의스러운 생각과 시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큰 대학들이 철학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철학과에 대해 기대하는 학문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함. 2천명대 학교에서 3천명대 후반의 학교로 top10안을 목표로 내실을 기하려고 하는 야심찬 목표를 가진 대학에서 왜 철학과를 없애는지, 철학과를 없애는 게 명지대학교의 철학인지. 명지대학교의 철학없음을 철학과의 폐지를 통해서 과시하려고 하나 아니면 철학과도 명지대학교 수준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철학의 무게감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포기를 하는 것인지. 최초 대학인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철학자의 길을 시계처럼 산책했던 칸트가 지금 아마 명지대학교의 사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바둑학과 폐지 관련해서 최근 신문기사가 많이 양산되는 것을 많이 접하고 듣고 있음. 21세기에 철학과를 없애겠다는 발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믿겨 지지 않음. 철학과와 바둑학과가 왜 명지대학교 특성화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철학과와 바둑학과의 폐지가 왜 명지대학교 미래 특성화 전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람. 왜 또 판도라의 상자를 꺼냈느냐 혹은 지나간 물을 돌릴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모르겠음. 여전히 이런 질문이 향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성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성찰없이 진행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통합 절차가 기형적이라고 생각함. 다시 돌아가면 철학과와 바둑학과의 폐지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그런데 오늘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오늘의 주제인 통폐합 승인 신청서를 내용상 수정 가능하나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까 사소한 정원의 문제는 수정하고 통추위 위원들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바독학과와 철학과의 폐지를 되돌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가 남아있는지에 입각해서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집중하고 싶음. 부총장님과 삼일분들께서 이 신청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여전히 변경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부총장님과 삼일 측에서 승인 신청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하시면 이 자리에서 철학과 폐지의 정당성 문제를 끝장 토론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생각함.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결국 표결 밖에 없음. 단, 표결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상황 변동이 있기 전까지는 동일한 사안으로는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재소집되어서는 안됨. 지난 번 통추위, 교무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오늘 대학평의원회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사회가 있음.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변경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 내용을 집중해서 논의를 하면 되고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표결 처리를 하면 됨. 의장님께서서는 통폐합 승인신청서 내용 수정 여부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표결에 돌입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 추가적으로 삼일 측에 한 가지를 확인하겠음. 신청서 필수 제출 문건에 동의서,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 이사회 결정사항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필수 서류임
- 의장 : 현재 동의를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줄 수 있는지 질문함
- 000 부총장 : 000 평의원님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음. 통추위나 실무위원회에서는 공청회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간담회, 학과나 단대에서 요구하는 간담회를 기획조정실장님이 안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함.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통합 승인 신청서에 반영이 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고 전체 실무위원회, 통합추진위원회 그리고 지난 주 교무위원회를 거쳐 만들어진 통폐합 신청서이기 때문에 명지대학교 행정부총장, 통추위 부위원장으로 말씀드리면 숫자상의 오류 변경 등 외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함. 의장님이 말씀하신 동의는 현재 진행중이고 명지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됨.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님. 그 동안 통폐합을 진행한 학교들의 동의 신청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알고 있는데, 모든 학교가 비슷함. 현재 어제 저녁 기준으로 교원의 동의율은 어제 저녁 기준으로 기존 대학들의 평균 수준은 넘었음. 교원은 60~70% 사이고 직원은 70~80% 사이임. 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희생과 정원 감축이라는 특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목표는 기존 대학보다

- 적어도 10~15%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교육부에 통합 승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의장 : 삼일회계법인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음. 신청서 제출 시 아까 언급한 동의서 등의 모든 서류가 제출이 되어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람
 - 삼일회계법인 000 : 신청서 제출시 첨부를 해서 제출해야 함
 - 의장 : 000 평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평의회에서 부동의를 할 수도 있다고 가정할 때, 부동의를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서류는 제출을 안하고 추후 제출을 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람
 - 삼일회계법인 000 : 타대학 사례를 보면 제출을 안한 경우는 없었음. 의결 내용도 찬성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였음
 - 의장 :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정확하게 삼일 쪽에서 절차를 알고 계시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함
 - 000 부총장 : 오해하실까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00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내는 통합신청서 변경이 불가능하냐고 여쭙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람. 내년에 교육부에서 수정 요청이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반영을 함
 - 의장 : 교육부 수정 사항은 다른 이야기이고 지금 통추위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사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수정이 불가능하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임
 - 000 부총장 : 그것은 맞음
 - 삼일회계법인 000 : 중요한 사항들이 변경되게 되면 12월까지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마이너한 변경이 아닌 큰 부분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한 것임. 의장님 질문하신 신청서에 동의서를 모두 제출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다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음.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된 상태로 내게 될 것이나 다만 아직까지 사례로는 부결된 상태로 낸 사례는 없음. 부결이 된다면 부결된 상태로 내고 부결 사유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야 할 것임. 부결된 게 통합신청서가 부결된 사유로 1:1로 대응되지는 않음
 - 000 부총장 : 질문이 있음. 저나 삼일회계법인은 오늘 평의회에 심의를 부탁드리고 보고하는 자리이고 질의 응답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질문함
 - 의장 :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아까 000 평의원님께서 발언을 요청하셨음. 그것까지 듣고 평의원님들이 계속 계시는게 맞다고 하시면 계속 계셔야 할 것 같음
 - 000 평의원 : 삼일에 질문을 하겠음. 신청서 제출에 평의회 의결, 구성원 동의가 포함이 되어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학교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음. 교육부에 제출을 하고 구성원 동의서는 추가 제출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으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음. 내용 변경을 보완할 때 제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함. 파악한 바로는 온라인으로 통합 신청 동의를 받은 학교는 없음. 온라인으로 통합신청서를 받았다는 것은 구성원 주체인 교협과 조합, 학생 대표자의 오프라인 동의는 안받고 온라인 동의 신청만 해도 가능한 것인지. 알아본 타학교에서는 모든 조직들이 동의서를 썼다고 들었는데 모든 학교를 다 알아본 것은 아니기에 답변 부탁함

- 삼일회계법인 000 : 최근 통합한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한 결과만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사례도 있음
- 의장 : 설문조사는 통합 또는 통합 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있음
- 삼일회계법인 000 : 설문에 참여한 인원중에 찬성이 몇 명인지를 집계했음
- 의장 : 지금 우리학교는 반대를 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아닌데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함. 동의 버튼만 있고 반대 버튼을 선택할 수가 없어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다 반대로 카운트 되는건지 궁금함
- 삼일회계법인 000 : 법적으로 신청서의 동의율이 몇 프로 이상이면 가결인지 부결인지에 대한 것이 없음. 전체 재학생이 몇 명이고 참여 대상이 몇 명인데 그중 몇 명이 찬성했는지에 따라 설립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결로 판단할지 기권으로 판단할지는 그 쪽에서 판단하는 부분임. 다만 반대가 없다고 해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몇 명 중에 몇 명이 찬성했다라고 제출하면 오히려 학교에 더 많이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음
- 000 평의원 : 최근에는 설문으로만 했기 때문에 구성원 단체의 오프라인 동의서 등이 필요없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동의서를 어떻게 제출하라는 것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음. 경상대 같은 경우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음. 그 이전에 통합한 학교들은 10년정도 되었고 다 오프라인으로 받았음
- 간사 : 현재 오프라인 동의서를 준비하고는 있음. 그래서 노조, 양쪽 교협, 학생회 대표 등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이번 주에 온라인 동의와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오늘 평의원회까지 끝내고 다음 주 정도에 시작하려고 했음
- 000 평의원 : 부총장님이 계시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음. 구성원들이 회생 때문에 통합하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오프라인 동의를 안했던 사례를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단체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듦. 그리고 온라인 동의 과정에서 교원은 모르겠으나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보직자 중심의 부서장들이 구성원들에게 음소도 하시고 직권을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시고 하는 모습이 있었음. 동의를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차라리 여기 구성원 단체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고 너무 심하게 하고 계신게 아닌가 하고 생각함. 동의를 하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토로하심.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꼈다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듬

- 000 부총장 : 000 평의원님 그런 생각을 전달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함. 여기 단체장님들이 계신데 단체장님들이 다 통추위 위원이고 하시기에 그런 점이 좀 소홀했던 것 같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의 위원장님, 교협 회장님들께는 따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은 다음 주에 시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다음주 화요일에 동문회장님께서 새로 바뀌셔서 회장단과 간사, 총무, 사무총장님은 뵙고 통합신청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또한 다음 주 중으로 학생회장님과 대표 조직 대표님들께도 찾아 뵙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가질 예정임
- 의장 : 아까 000 평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부총장님 계셔야 하는 것인지 문의
- 000 평의원 : 안 계셔도 됨
- 000 부총장 : 오늘 더 있어야 하는데 1시에 약속이 있음. 마지막으로 학교를 위하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각자의 자리에서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함. 잘 좀 부탁드립니다
(000 부총장 퇴장)
- 의장 : 삼일 pwc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문의함
- 000 평의원 : 철학과 교수님들과 바둑학과 교수님들은 간담회 등을 통해 의향을 묻고 다른 과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 삼일회계법인 000 : 지금 신청서 제출까지 하다보니 그 뒤에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부분들과 통합학교의 학적 문제는 1월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 고려할 사항들은 정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임. 다만 액션 플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임
- 000 평의원 : 조치 계획의 원칙에 있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고려가 안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질문함
- 삼일회계법인 000 : 대원칙은 있으나 상세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열어줄 것인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임. 신청서를 제출할 때 12월까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큰 것들이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은 제출의 사실 자체가 올해가 아니라 보완된 것이 다시 새로 제출된 것으로 인식되면 안된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상세 전략이나 세부 실행 전략들이 뒤에 보완되는 건 상관없이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만들어갈 예정임
- 000 평의원 : 삼일이나 학교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으나 통

합추진위원회에서도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교무위원회 앞에서도 시위를 하는 등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었음.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있고 전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의장 : 삼일회계법인에 추가 질의할 것이 있는지, 이석하셔도 되는지 질문함
- 평의원들 : 추가질문 없음
- 의장 : 오늘 삼일회계법인 두 분 수고 많으셨음. 이제 들어가셔도 좋음
- 삼일회계법인 000 : 통합이나 진행 관련해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시간적인 촉박성으로 인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통합 과정에서 명지대의 자체적인 생존과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법인의 문제로 인해서 학과나 학사구조 개편에 있어서 폐지되었던 학과가 다시 살아올 수도 아니면 기존에 잘했던 과들도 개편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서 자체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다만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음
- 의장 : 고생 많으셨음
(삼일회계법인 000, 000 퇴장)
- 의장 : 000 평의원님께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000 평의원 : 이 자리는 유명무실한 자리가 아님. 통폐합 신청서 상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대학의 구성원들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우려들이 줄어들거나 해소될 수 있는 변화가 오늘 회의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왔음. 이게 아니라면 거수기도 아니고 통추위에서 교무위원회에서 회의 했으니깐 못 고치고 그냥 통과시키라고 얘기하신 것임. 이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쉽지 않고 마음이 편치 않음. 이 신청서를 내는 금년 말까지는 못 고친다고 하니 결국 할 수 있는 건 표결밖에 없지 않나 생각함.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온라인으로 반대 의견도 표명할 수 없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건 이 자리에 계신 5개 조직의 대표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개별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 하겠다라는 의사를 확인한 것임. 오늘 회의가 너무 형식적인 자리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큼. 그런 취지에서 아까 질문과 확인을 했던 것이고 부총장님과 삼일 분들과 퇴장하시고 남은건 결국 표결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함.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표결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행정이나 중요한 과정 가장 핵심적인 합의가 아닌 것임
- 의장 : 다른 의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람
- 000 평의원 : 000 평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음. 학교에서 통합신청서의 오프라인 동의서, 대학평의원회 의결서의 찬성 의견 없이 통합동의서를 내는 학교가 없다고 하면서 공청회나 모든 회의에

서는 구성원 단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로 하겠다고 해놓고서 평의회에서는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이런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 벼랑 끝 전술임. 여기에 동의를 안하면 너네도 죽는다는 논리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음. 다만 저희 구성원 전체 학생, 교원, 직원 단체는 들어와 있는데 총동문회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심. 그래서 오늘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 의장 :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물음
- 000 평의원 : 000 평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 주 월요일 통추위 1차 회의에서 지난 주 금요일로 연기를 하자고 주장했을 때에는 연기를 통해서 폐과 되는 것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의미였고 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과들은 살아남았음.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동문회 대표 분들이 빠졌다는 이유로 다음 주로 연기한다해서 이 신청서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 아님. 결국 연기를 했을 때의 실익이 무엇일지 모르겠음. 동문회 까지 안고 한 번 총동문회 분들도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의미는 있겠지만 일주일만 지난다 한들 내용 수정도 불가능한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임. 반대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청원을 드림
- 000 평의원 : 말씀 드린 것은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도 000 평의원님 말씀에 공감함. 오늘 다수의 분들이 표결 처리하자고 하면 동의함.
- 의장 : 평의원님들의 의견은 없으신지 물어봄.
- 000 평의원 : 그 전에 표결을 지금 처리할 것인지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할 것인지 그것도 다수결로 해보는 것을 제안함
- 의장 : 000 평의원님께서 회의를 연기해서 동문회,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대표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포함해서 표결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씀하십시오
- 000 평의원 : 000 평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주로 연기가 된다해서 사실상 변하는 것이 없다면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아쉽지만 오늘 표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000 평의원 : 오프라인 동의서 요청을 받아서 한 번 더 중앙운영위원회 분들과 상의를 하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음.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000 평의원 : 이사회가 언제 예정이 되어있고 이런 일정까지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이 평의회 의결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도 생각하는지 아니면 일정상 추가적인 순연하고 의사결정을 미루는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어떨지 제안함
- 의장 : 그것이 합당할 것 같음. 간사에게 이사회 일정을 질문함
- 간사 : 이사회는 27일로 예정되어 있고, 법인에 안건 통보는 일주일 전에 해야 함. 20일까지는 안건 통보를 해야 함
- 의장 :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19일 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음. 참석하지 않은

평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 번 더 회의를 할지 지금 표결을 할지에 대해 투표를 하겠음

- 000 평의원 : 통합 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거나 권고한다거나 하는 것을 가져가고 다음 주에 다시 표결한다는 뜻으로 연기를 생각한 것이고 단순히 표결만 연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음
- 000 평의원 : 표결만 연기하는 것은 의미없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음. 이런 경우에 더 많은 사람이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 신청서 내용의 변화와는 별개로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의장 : 의견이 더 없으시면 회의를 다시 할 것인지 여부를 표결하겠음. 거수 관찰은지 의사를 물어봄
- 000 평의원 : 000 평의원님께서 동의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 더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연기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의의 일정이 잡혔는지 물어봄
- 000 평의원 : 동의서를 월요일까지는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월요일 전에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진행할 생각임
- 000 평의원 : 현실적으로 19일 또는 20일인데, 모든 분들이 모든 시간대에 다 가능하시지는 않음. 취지가 더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인데 우리끼리 어느 시간대가 가능한지 확인을 한 후 다른 분들이 오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음. 비슷한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면 연기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음
- 000 평의원 :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000 평의원님 의견이 맞음. 연기했는데 정족수를 못 채울 수도 있음
- 000 평의원 : 대학평의원회 의결이 이사회에 보고사항으로 올라가는지 간사에게 질문함
- 간사 : 다 포함되서 올라감
- 000 평의원 : 이사회 일정에 너무 촉박하게 끌려갈 필요는 없고 저희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맞음
- 000 평의원 : 000 평의원님 말씀이 평의원회가 이사회에 귀속되느냐지만, 지금까지 교무위원회 평의원회 그 다음 이사회 의결 절차가 일자가 벗어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음. 가능하면 이사회 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음
(평의원들 일정 확인)
- 의장 : 오늘 참석하신 평의원님들은 화요일 오전에 가능하시니 못오신 분들 의견을 여쭙고 5분 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음
(5분 휴식)
- 의장 : 오늘 참석 못하신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렸는데 000 평의원님은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나 오실 수 있으면 오시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셨고 000 평의원님은 힘드시다고 하셨고 000 평의원님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음.

OOO 평의원님은 11시부터 1시까지 일정이 있어 10시에는 가능하다고 일정 확인됨. 확실하게 참석이 가능하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은 OOO 평의원님뿐이심. 오늘 표결 처리 여부를 거수로 의사결정 하겠음. 오늘 참석하지 못한 평의원님들이 더 참석하실 수 있게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는 안이 1번임. 두 번째는 오늘 표결을 진행하자가 2번임

(평의원들 거수 진행함)

- 의장: 표결 결과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표결하는 1안 3명, 오늘 표결하는 2안이 4명임. 표결 결과 오늘 신청서안의 찬반을 표결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부총장님과 삼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서 내용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였고, 이 안에 대해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하겠음. 무기명 투표 용지를 평의원님들께 나눠드리겠음. 통합 승인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시면 찬성에 부동의하시면 반대에 표시해 주시기를 바람

(평의원들 투표)

- 간사: 투표 결과는 총 7표 중 찬성 1표, 반대 6표임.
- 의장: 투표 결과 대학평의원회 심의에서는 부결로 결정된 것을 알려드리겠음. 오늘 부결이 된 것은 아마 결정적으로 통추위를 통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평의원님들이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음. 평의원님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도 대응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함.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평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 이것으로 제 11차 대학평의원회를 마치겠음.

2022. 12. 16.

작 성 자 : 기획예산팀장 안 경 훈 ㉠